

4대강 종합정비사업 추진방안

- 제방보강, 천변저류지, 생태복원 등 종합적(Package)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공간 조성
-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

□ 추진배경 (지구온난화 등 홍수, 가뭄 피해가 빈발하여 근본대책 필요)

- 홍수피해 급증, 사전예방투자 부족으로 수해복구에 과다비용 발생
 - * 연간 홍수피해액 '70년대 1,700억원 → 최근 2조7,000억원
 - * 연간 홍수예방투자 1.1조원, 복구비 4.2조원
- 「물부족국가」인 우리나라는 '11년 약 8억㎥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가 심하여 근본대책 마련 곤란
- 주기적 가뭄은 지역적 물부족 심화, 하천 건천화로 수질악화
 - * '01년 가뭄시 제한급수(86개 시군, 30만명), 농업용수 부족(50개 시군)

□ 주요 사업내용

- 제방안전도 증대를 위한 제방단면 확대 및 노후제방 보강
- 홍수소통 공간확보를 위해 과도한 퇴적구간 정비
- 홍수저류 공간확보를 위한 중소규모댐·조절지 및 저류지
- 수면활용, 가뭄대비 비상용수 공급 등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
- 상류~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
- 습지, 친수공원 등 생태하천 조성

□ 기대효과

-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(年 2.7조) 및 복구비(年 4.2조)를 저감
-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로 가뭄시 물 공급이 가능한 그릇(pocket) 확보
- 둔치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
-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

□ 추진계획

- 추정사업비는 약 14조원(하천분야 약 8조원),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
-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도시 중심으로 7개 지구를 선도사업*으로 선정, 우선 금년말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

* 충주(한강), 대구·부산·안동(낙동강), 연기(금강), 나주·함평(영산강)

※ 4대강 정비사업은 홍수·가뭄대비 및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물류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대운하와는 무관

- 사업내용 또한 대운하와 관련된 한강·낙동강 연결터널 및 인공수로와 선박운항을 위한 10m이상의 대형보 및 갑문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

[FAQ]

1.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일정

- 내년 상반기까지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세부사업 확정, 경제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조기 집행
 - '09년 사업은 사전준비 철저로 최대한 조기 착공하고 '11년 까지 완료 계획(댐·조절지 등 대형시설 마무리공사는 '12년 완료)

2. 왜 이 시점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하는지

- 근원적인 홍수방지를 위해 '02년부터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말 완료되고, 최근 지자체에서 생태하천조성 등 하천관련 사업 확대 및 조기추진 요구가 증대
-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하천정비사업을 치수·이수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생태환경 복원, 레저 등 복합공간으로서의 하천으로 종합정비하기 위한 여건 성숙

3. 4대강 정비가 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 아닌지

- 4대강 정비는 홍수에 안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한 것, 대운하는 주운 및 물류수송이 목적
 - * (4대강) 제방보강, 하도정비, 하천환경정비, 천변저류지, 자전거길 조성 등
 - * (대운하) 선박운항을 위한 주운수로 굴착(최소수심 6m이상) 굴착, 대형보·갑문, 여객·화물터미널 설치 등

4. 총사업비가 경부운하 사업비와 유사한데

- **경부운하** 총사업비는 **15.7조원**(한반도대운하연구회)인 반면, 4대강 정비(추정사업비 14조원) 중 **한강·낙동강** 사업비는 10조원
 - 이중 댐 및 농업용저수지(약6조)를 제외한 **하천관련 사업비**는 약 4조원으로 **경부운하의 25%에 불과**

5. 왜 4대강(한강, 낙동강, 금강, 영산강)만 정비 하는지

- 4대강유역은 남한면적의 70%, 국가하천 연장의 75%, 국민의 78%가 이용하므로 우선 투자 필요
 - 향후 기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

6. 추정사업비 약 14조원의 세부내역은?

-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인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세부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

7. 선도사업 7개 지구 선정기준

- 지역에서 요청한 사업중, 조기착공이 가능하고 집중 투자시 가시적 효과로 후속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지구중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선정